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익산시, 명절 물가·수급 안정... 물가대책 종합상황실·대책반 운영 팔봉공설묘지 교통혼잡 예상... 성묘차량 진입 통제·셔틀버스 운행

익산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 소외계층 보호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민생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뒀다.

연휴 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수품을 대상으로 물가 및 수

급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 불공정 상행위 점검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 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총 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고금리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성수물품 합인행사, 다이로움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

공자 위문 이등금식 부식배달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으로는 교통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교통 관련 민원사항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추모객이 북비 혼잡이 예상되는 팔봉공설묘지에 설 명절 당일 교통 통제로 질서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시민들이 불편없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 외에도 각종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는 지난 2일 허전 익산부시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선제 대응'

익산시, 2025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2차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내년 국가 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시는 2일 허전 익산부시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보고회는 그간 발굴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부서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정부 국정과제, 도정 방안에 부합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대응 논리에 대한 내실을 더했다.

현재까지 시는 총사업비 기준 852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48건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올해 총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한 사업도 포함됐다.

농생명·식품산업과 철도교통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을 확장하는 신사업들이 대거 발굴됐다. 이와 함께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구축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유·회복 프로그램 △는 타자물 배수 개선사업 △왕궁 정차농원 자연환경복원 사업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구축'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다양한 식품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인력을 연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현장 맞춤형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은 익산역에 선상 주차장과 선상 역사를 증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중앙기철도 운영 전략에 따라 호남선 철도교통의 거점인 익산역 이용객은 2000년 기준 1390만 명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내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025년 국가예산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변영 협의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전 부시장은 "국정과제와 부합하면서도 우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달라"며 "앞서 발굴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해수부 송명달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방문

설맛이 환급행사 첫날 소비자와 소통...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설맛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첫날을 맞아 지난 2일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종합센터 내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

비하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내 수산물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여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 부스에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고,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

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할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번 설맛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 참여를 희망한 전통시장 중 거리상의 문제로 연합운영에서 제외된 주공시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급행사 연합운영 범위를 확대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지원

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8000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예산변위를 감안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6개월분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하여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유 관세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2022년 1월~5월 중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3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1)당 경우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설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직접 챙겨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 시장은 새해 안부 인사를 나누며 시설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아울러 생활인들을 가

족처럼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 되지 않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허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민, 단체, 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익산시가 목천포천의 도시생태축 복원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힘을 쏟는다.

시는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지난 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도시 인구 증가 및 개발 확장으로 산림·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됨에 따라 동·식물 개체수 감소와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22년 '합리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이어 지난해 8월 목천포천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2022년 '합리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이어 지난해 8월 목천포천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저소득층 자산지원 희망저축계좌2 모집

군산시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1인가구 11만 원, 2인가구 184만 원, 3인가구 235만 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만기해지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1차) 2월 1일~20일, (2차) 5월 1일~20일, (3차) 8월 1일~20일이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통장잔액 시 자립역량 교육 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